

Working Paper 2004-08

중등단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현황 및
정책과제

이 지 연

2004. 12.

중등단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현황 및 정책과제

이 지연¹⁾

< 목 차 >

I. 문제인식 및 목적	1
II. 장애 개념과 진로선택·발달이론의 관점	3
III. 중등단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졸업 후 진로현황 및 문제점 ...	7
IV. 중등단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현황 및 문제점	9
V. 중등단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정책 과제	18
참고문헌	24

최근 특수교육계는 ‘장애’라는 용어대신 일반 “특수교육요구아동”(child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아동이 자신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에 요청할 수 있다는 뜻으로 사회는 장애아동에 관한 획일적 지원보다는 이들의 특수한 요구에 따른 개별적이고 고유한 지원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사회생활로의 첫 발을 디디지 않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삶의 질과 만족을 지원하는 진로지도의 교육적 활동이 바로, 장애를 극복하는 직업재활과 사회통합지향의 철학과 일맥상통하며, 이때 국가와 사회는 의무적으로 개인의 장애특성에 따라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차별 없는 진로교육환경을 제공해야 하는 책무를 강조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란 용어로 출발하였다.

이 정책제안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현황을 학교·교사·학부모·그리고 수요자인 학생(특수학교와 특수학급에 재학중인 379명) 대상의 심층 면접과정을 종합하여 국가가 지향해야 하는 4대 우선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또한,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지도와 관련된 이해관계자(stakeholders), 즉, 정부·학교·기업·지역사회·연구기관이 실현해야 하는 세부 지원 방안을 ① 법·제도적 지원, ② 효과적 진로지도 지원체계, ③ 효과적 진로지도내용, ④ 효과적 진로지도 전달 방법, ⑤ 특수교사의 진로지도 역량 제고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고 추진 주체별 긴급성을 표시하여 제안하였다.

1)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email : catslee@krivet.re.kr)

I. 문제인식 및 목적

1.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지도에 관한 국가 책임과 의무

가. '장애'의 개별성·복잡성·포괄성을 지원하는 국가의 진로지도 책임과 의무

진로교육(career education)은 직업교육의 확대개념으로 개인이 지니고 있는 가능성을 계발시켜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게 하여, 의미 있고 생산적인 활동에 종사하도록 지원하며, 궁극적으로는 개인이 행복한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모든 교육적 활동임(Calhoun & Finch, 1989).

특수교육대상학생(student with special educational needs)은 일반학생에 비하여 상급학교 진학과 직업의 선택 폭이 상대적으로 좁기 때문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개인의 장애특성과 장애정도, 소질과 적성, 그리고 졸업 후 취업이 가능한 직종 등 현실적인 제반요소를 고려하여 철저한 사전 준비가 이루어져야 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합리적 진로결정 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나, 개인이 가진 장애의 개별성·복잡성·포괄성은 이들의 '합리적 의사결정' 대신 '대안 없는 선택'으로 연결되어 자신의 장점과 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됨.

자기주도적 진로개발이 가능한 사람(Do-it-Myself) 보다는 비진학·미취업청소년, 중고령자, 노동시장 재진입 여성, 실직자, 고령자, 그리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진로지도 서비스에서 소외된 계층을 대상으로 이들의 진로개발을 적극 지원하는 기능과 역할이 국가 진로지도의 책임과 의무의 핵심 대상이 되어야 함.

나. 통합교육 지향의 인식 변화에 대응하는 진로지도의 역할 재정립

최근,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개념은 통합교육을 적극 지향하고 있고, 통합교육 자체에 내포되어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개혁과 발전을 적극 모색하고 있음.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이러한 변화는 장애가 모든 이에게 가능하다는 '다양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화하면서 장애에 관한 개념을 보다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지능에 대한 가변성을 적극 인정하여, 모든 학생의 개인적 요구를 존중할 수 있는 교육의 역할과 기능이 학교교육의 주류(mainstream)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전환에 기초하고 있음.

정부는 내실 있는 진로상담의 운영을 통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를 강화하고, 졸업 후 직업으로의 효과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부의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지방사무소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관 등과의 효과적인 연계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전환 능력 평가 결과를 통하여 효과적인 진로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지의 실현을 정책 방향에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음(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2003).

하지만, 이러한 정책 방향성은 장애 문제를 모든 이에게 가능한 '다양성'으로 접근하여 일반 학생과 통합된 교육 환경에서 동일한 교육 활동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가정과, 한편으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

한 특별한 배려와 요구가 차별된 형태의 교육 활동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역설적 논리를 제공하고 있음. 이러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 환경에 관한 이중적 잣대는 지금까지 통합교육 내의 특수 학급 학생은 물론, 특수학교 내의 학생 모두에게 제공되는 진로지도 서비스의 정책 방향이 매우 선언적인 성향과도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며, 궁극적으로 최종수혜자의 개인특성에 적합한 진로서비스 제공이 매우 미흡했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게 함.

2. 논의의 목적

이 글은 중등단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공급자인 학교, 교사, 학부모 측면, 그리고 수요자인 학생의 장애유형별¹⁾ 진로개발 현황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를 지원하는 정책 우선 과제 및 세부 지원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²⁾

3. 용어의 정의

진로인식·탐색·준비는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 과정의 단계(stage)로 진로행동을 규범적(normative)과 종단적으로 설명하려는 진로발달 이론에서 취하는 입장으로 개인의 생애에 걸쳐 나타나는 진로발달 단계로 간주됨. Ginzberg(1952)와 Super(1953)는 진로인식 단계의 과업을 성공적으로 달성하였는지의 여부가 이후의 진로발달 단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간주하고 있어, 특정 연령 기간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글에서는 초·중·고등학생 모두에게 진로인식·탐색·결정·준비의 진로발달 단계가 동시에 이루어지되, 발달적 견해를 긍정하여 그 수준과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인정함(이지연 외, 1998; NCDG, 1989).

-진로인식은 진로결정 혹은 진로발달을 목적으로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혹은 환경)를 이해하는 인지적 단계로, 이 글에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특성을 포함한 자기특성이해와 자신이 가지고 싶은 직업

1) 이 글에서는 장애유형을 시각·청각·정신지체·지체부자유·발달·중복·기타 장애로 구분하였음.

2) 이 글을 위한 논의 근거는 다음의 4가지 조사에 기초한 연구결과를 토대함:a. 진로지도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국 특수학교와 특수 학급 대상의 전수 '설문조사', b. 특수교육 교사대상의 '진로지도인식 및 요구조사', c. 학부모대상의 '자녀 진로결정 개입 및 진로지도 요구조사', d. 장애유형별 학생의 진로개발특성 분석을 위한 '관찰 및 심층면접'. 특히, 학생대상의 심층 면담은 장애유형별 특수학교(6개교)와 특수학급(3개교)에 재학중인 총 379명 학생을 관찰·심층 면담하였음. 면접내용 기입 오류의 최소화를 위하여 세분화된 하위 영역의 다지 선다형 문항으로 개발하였고, 각 문항의 타당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특수교육 및 직업재활을 담당하고 있는 학교현장 교사로부터 각 질문의 예상 응답 정보를 사전에 수집하였고, 정보의 중복성이 없도록 구별하여 다지 선다형 문항으로 개발하여, 특수교육 교사의 최종 검토를 기초로 수정·보완하였음. 또한, 대상자의 "장애" 특수성으로 연구자가 의도하는 면담 내용의 정확한 응답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음을 가정하여, 피면담자와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가까이 생활을 관찰할 수 있는 특수교사를 면담자로 선정하였고, 이들의 의견 반응을 허용하였음. 면담자로 선정된 특수교육 담임교사는 사전 심층면담 워크숍을 통하여 심층면담의 세부 내용과 학생의 질적 면담 반응을 다시 구조화된 문항으로 응답하는 요령 등을 안내 받았음. (중등단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현황 및 정책과제', 2003, 한국직업능력개발원참조)

과 그 직업에서 요구하는 것에 관한 인지 수준, 그리고 ‘자기-직업’간의 일치 정도로 상정하고, 이를 평가하기 위하여 진로성숙도검사(임언 외, 2001)의 ‘자기이해 및 직업이해’문항을 토대로 장애상황에 맞추어 재구성하여 사용함.

-**진로탐색**은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을 목적으로 자기 자신과 일의 세계(혹은 환경)를 이해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인지·행동적 활동을 의미하는 것(Colarelli & Hartman, 1983)으로, 이 글에서는 진로에 관한 자기 주도적 탐색 행동과 관련 경험을 통해 진로탐색의 정도를 평가함.

-**진로준비**란 진로결정이나 진로발달을 목적으로 진학과 취업을 실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인지·행동적 활동을 의미함. 이 글에서 진로준비는 진로준비행동, 구직조건(취업시 희망 월급여, 고용 형태, 근무 시간), 구직기준 등을 포함하여 질문한 것을 지칭함.

중등단계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란 특수교육이 필요한 중학부와 고등부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학생을 지칭함. 이 글에서는 ‘장애학생’이란 직접적 용어 대신, 장애학생이 자신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사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국가와 사회는 장애학생에 관한 획일적 지원보다는 이들의 만족스런 삶의 질과 진로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들의 특수한 요구에 따른 개별적이고 고유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국가 책무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란 용어를 사용함.

II. 장애 개념과 진로선택·발달이론의 관점

1. 장애 개념

장애 개념은 연령과 장애 정도, 그리고 판별 목적 및 판별 방법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짐. 따라서, 장애인을 정의하는 것은 장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Berkowitz & Hill, 1986).

ILO와 UN의 장애인 권리선언과 한국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를 손상(Impairment)과 기능장애(disability)의 두 차원으로 나누어 정의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의는 사회적 불리(handicap)개념은 제외된 것임. WHO는 손상, 기능장애, 그리고 사회적 불리의 세 차원에서 장애 개념을 사용하고 있고, Nagi(1991)와 Laplante(1991)은 장애 개념에 사회적 불리(handicap)는 포함하지 않는 대신, 손상(Impairment),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 장애(disabled), 활동제한(Activity Limitation)을 포함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음.

이들의 공통점은 기능제한(Functional limitation)이란 요소로 장애를 설명하는데, 이는 단순 인간행동의 최소 단위인 행위 제한이 아닌, 보다 연속적인 삶의 역할을 지닌 고차원적인 활동 수행에서의 장애를 의미하며, 이러한 점은 WHO의 사회적 불리(Handicap) 개념과 유사할 수 있음(<표 1> 참조). 최근, 자주 사용되는 장애개념으로 발달장애(Developmental delay)라는 용어는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둔 장애분류를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정신지체 영역에 적용되고 있음.

<표 1> 장애개념의 정의와 특징

장애 정의의 관점	개념 분류	분류별 정의
UN & ILO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Impairment) ▪ 기능장애(Disabilit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Nagi 개념과 유사 · 행위와 활동상의 제한
WHO의 정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Impairment) 	· Nagi 개념과 유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장애(Disability) 	· 손상에 의한 활동과 행위 수행에서의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핸디캡(Handicap) 	· 고차원적 역할(예: 근로자 역할)수행에서의 문제
Nagi(19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Impairment) 	· 활동성 질병에 의한 상실이나 선천적 상실에 의한 정신·해부학·심리학적 구조 혹은 기능 상실을 의미. · 신체적 감각적 상실외의 만성적 질병에 기인한 상실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제한 (Functional limitation) 	· 무엇을 하는 것에서의 무능과 개별적 어려움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Disability) 	· 손상에 의한 행위와 활동상의 제한
LaPlante(19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손상(Impairment) 	· 생물학적·의학적 의미의 상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능제한 (Functional limitation) 	· 행위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활동제한 (일상적/고차원적활동) 	· 활동 및 역할의 제한

*자료: 1980년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장애분류(ICIDH: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s Disability, and Handicaps).

2. 장애인(people with disabilities)과 진로선택·진로발달이론의 적용

가. 일반인 대상의 이론 적용

개인의 직업선택·전환, 그리고 직업만족을 설명하는 직업심리의 대다수 이론은 비장애인 대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이들의 진로선택(career choice)과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이론을 발전시켜왔음. 이러한 점 때문에 다수의 직업심리학자는 장애인의 진로개발이론 적용시의 잠정적 한계점을 지적(Conte:1983, Curnow:1989, Osipow:1993)하고 있지만, 이러한 진로선택 및 발달이론은 장애인을 포함한 모두의 진로개발을 포괄적인 형식으로 설명하고 있어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직업행동을 이해하는 주요한 기틀로서 활용되고 있음.

진로선택이론(career choice theory)은 개인의 인생 한 시점에서 직업선택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선택과 관련변인간의 관계 규명을 시도하였는데, 특성이론, 상황(사회적)이론, 그리고 부모-자녀간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Roe, Holland, 일-적응이론, 사회학습이론 등이 진로선택이론의 범주에 해당됨.

반면에 진로발달이론(career development theory)은 개인이 생애전반에서 직업과 관련된 다양한 요인과의

상호관계를 통하여 직업발달이 이루어짐을 규명하기 위하여, 소수를 대상으로 장기간 계속된 연구(longitudinal) 결과와 개인의 진로행위 검사 도구의 축적된 연구결과를 기초하여 발전하였으며, Ginzberg, Super, Tiedeman & O'hara 이론 등이 진로발달이론의 범주에 해당됨.

나. 장애인 대상의 이론 적용

이러한 진로선택과 발달이론은 40대 연령의 백인 남성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였기에 장애인에 대한 이론의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음.

진로발달이론을 정립한 Super(1985)는 장애인의 본질적인 특성과 비본질적 특성을 살펴보고, 직업 갖기 이전의 장애와 직업을 갖은 이후 장애를 체험한 사람을 구분하여 직업 선택의 행위에서의 특징을 설명하였으나, 자신의 이론을 장애인에게 적용시키지 않았음. 또한 발달의 정신역동이론(psychodynamic theories of development)을 기초한 Roe(1956, 1957)와 Holland(1959, 1966) 등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이론들을 개발하였으나 모두 적용시키지 않았고, 향후, 재활정신분석자와 상담자가 좀더 구체적으로 장애인의 직업 선택 요인과 과정을 설명하는 진로개발 모델이 고안되어야 함을 과제로 제안하였음(Goldberg Richard T, 2003).

Tiedeman과 O'Hara(1963)는, Super이론을 확대시켜 청소년기의 자아개념을 설명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모형을 제공하였지만 이 접근은 장애를 가진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에게 적용할 수는 있지만, 정서적으로 미숙하고, 충동적이며, 집중력이 부족하여 의사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 장애인에게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았음.

Hershenson(1983, 1999)은 직업인성, 직업역량, 직업목표라는 세 가지 영역에서의 직업적응(work adjustment)모형을 제안하였고, 장애에 관하여도, 세 가지 측면, 즉, 장애상태(disabling condition), 장애영향(the impact of disability), 그리고 사회적 불리(handicap)가 상호적으로 서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개념화하여, 직업적응을 위한 세 가지 영역에서의 세 가지 측면이 직업재활과 업무적응력을 지체시키거나 강화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였음. Hershenson은 청각장애, 소수민족, 그리고 저소득자 대상의 연구를 기초로 타당성 있는 이론과 관련된 연구에서 장애 요인이 인간의 업무능력에 특별한 영향을 끼침을 발견하고 장애인에게 적용시켜 설명하였음.

McMahon(1979)은 근로자의 욕구, 자격, 직무요구, 직무강화능력을 조화시킴으로써 경력(mid-career)있는 사람의 직업재개발(vocational redevelopment)모형을 제시하였음. McMahon은 Minnesota의 일-적응(work adjustment)이론에 기초하여 장애가 야기 시키는 분열(disruption)개념을 소개하였고, 이 모델은 직업경험이 있는 장애인의 업무환경을 주요한 요소로 선정하고 있어 직업경험이 없는 장애인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음.

Wonacott(2001)은 Frank Parsons의 직업상담초기모형으로부터 발달된 개인-환경 상호작용이론적 맥락에서 장애인의 성공적인 고용은 개인, 환경, 타인의 지각 및 다양한 환경과 개인의 상호작용인 함수임을 지적하여 직업상담자가 장애를 가지고 있는 내담자의 장애정도, 장애발생시기, 그리고 직업상황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상담을 진행해야하는 중요성을 강조하였음. 또한 Wonacott(2001)은 Holland 이론을 토대로 구성된 Self-Directed Search(SDS, 1985)는 보통수준과 낮은 독해능력의 개인 수준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장애인이 직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고려해야하는 대안을 만드는데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으며, MVS(My Vocational Situation)는 장애인의 진로계획을 돕고 적극적 참여를 증진시키는데 인지적 한계 없이 사용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으나, 장애의 영향과 직무적응의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적용되어서 안 됨을 제안하였음.

Drive(1979)는 경력이동의 패턴을 이동방향과 주기 측면에서 크게 4개의 경력개념모형(Career Concept Model)¹⁾으로 제시하였음.

이지연(2000)은 Drive의 4개 경력개념모형을 기초로 우리 나라 취업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근로자가 선호하는 경력개념 유형을 선택하도록 하였는데 그 결과²⁾, '나선형'과 '전문가형'이 각각 25.8%와 25.5%로 가장 많이 선호되는 것으로 응답된 반면, '수직적 승진중심형'과 '전환형'은 21.1%와 15.2%로 응답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장애라는 요인이 조직의 생산성 향상과 조직원간의 협력차원에서 매우 부정적일 것이라는 한국적 사회인식이 작용되는 요인으로, 장애근로자 스스로가 승진 혹은 조직의 핵심의사결정권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현실 인식에 기초한 선택임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이지연(2000)은 장애 자체의 개인특성이 외부의 다른 사람과의 의사소통보다는 내면의 자신과의 의사소통을 더욱 편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 분야 '전문가형'의 경력유형 지향 선호가 높을 것이며, '전환형'의 경우는 새로운 직장환경과 동료와의 적응 자체가 제 2의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장애근로자의 선호 경력유형 가능성이 낮을 것이라 지적하였음. 단, 점차 장애인에 대한 사회보장이 증가함에 따라 일 자체가 싫어 다른 직장으로 쉽게 전환을 하여도 생계에 큰 지장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비장애인과 같이, 다양성과 독립성 지향을 위한 '전환형'이기 보다는, 직업정체감 부족으로 인하여 쉽게 직장을 옮기는 '전환형'의 가능성을 지적하였음.

취업한 장애인의 삶의 질(the quality of life)에 관한 최근의 실증적 연구조사 결과에 의하면, 직장생활(직무, 대인관계, 근로조건 및 환경, 회사에서의 자기발전 가능성)에 관한 만족도가 9개 세부영역에 대한 삶의 만족도³⁾중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또한 장애 근로자가 직장생활 만족을 크게 경험하면 할수록 자신의 장애를 삶과 일에 있어 심각한 장애로 느끼는 경향이 매우 적고, 우울·불안·적대와 같은 부정적 정서를 적게 경험하는 것으로 검증되었음(이지연, 2000). 이러한 결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이 그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는 것으로 아직 직업세계에 진입하지 못한 장애청소년의 경우, 향후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긍정적 자기이해(self-knowledge)탐색과 이에

1) ①직선형(linear career concept)이란 조직 내에서 수직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가장 일반적인 경력이동의 패턴을 설명하고 있으며 권력과 성취감을 추구하는 개인의 가치를 반영하는 유형임. ②전문가형이란 (expert career concept) 한 분야에 일생을 몸담고 한 우물을 파는 유형임. ③나선형(spiral career concept)이란 7-10년을 주기로 한 분야에 숙달된 후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유형이며, ④전환형(transitory concept)이란 3-5년을 주기로 계속 다른 분야로 이동하는 유형을 지칭함.

2) '몸담고 있는 직장에서 최대한 승진하고 싶다'는 수직적 승진 중심형, '지금하고 있는 분야에 일생을 몸담으며 한 우물을 파고 싶다'는 전문가형, '5-7년 주기로 한 직무분야에서 숙달된 후 다른 분야로 옮기면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싶다'는 나선형, '2-3년을 주기로 계속 다른 분야로 이동하여 다양한 업무경험을 즐기고 싶다'는 '전환형'으로 질문화하였음.

3) 직장생활, 경제상태, 여가생활, 건강상태, 외모에 대한 만족도, 생활수준, 친구관계, 가족에 대한 만족도, 사회적 제도 및 인식의 9개 영역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였음. 반면, 중소기업의 근로자(전문기술직/사무직/생산직)를 대상으로 동일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할 결과, '가족'과 '친구관계'가 각각 1,2위로 '직장생활'의 경우는 7위로 확인되었음.(이지연 외, 200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초한 직업과의 관련성 탐색, 그리고 삶 전체에 관한 장·단기 계획 등을 포함한 진로교육의 내용이 장애청소년의 교육과 훈련의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제안하였음.

III. 중등단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학교졸업 후 진로현황 및 문제점

1. 중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졸업 후 진로현황 및 문제

우리 나라 중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진로현황은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음. 2003년을 기준으로 볼 때, 중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총 3,677명이고, 이중 특수학교 졸업생은 1,983명, 특수학급 졸업생은 1,368명, 통합학급을 졸업한 학생은 326명이었으며, 졸업생의 96% 가량은 고등학교에 진학하였고, 0.5%인 18명은 취업하였으며, 3.5%인 127명은 **진학도 취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에 대한 진로가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있음.

<표 2> 중학교 졸업생 진로현황

(단위:명, ()안은%)

구분	졸업생 수 계	진학자수					취업자수	미진학 미취업자 수
		특수학교	특수학급	실업계교	일반계교	소계		
계	3,677 (100%)	2,077	592	619	244	3,532 (96%)	18 (0.5%)	127 (3.5%)
특수학교	1,983 (100%)	1,895	9	4	1	1,909 (96.3%)	6 (0.3%)	68 (3.4%)
특수학급	1,368 (100%)	150	471	488	203	1,312 (96%)	9 (0.6%)	47 (3.4%)
통합학급	326 (100%)	32	112	127	40	311 (95.4%)	3 (0.9%)	12 (3.7%)

참고: 2003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 교육인적자원부

2. 고등학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졸업 후 진로현황 및 문제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현황은 <표 3>에 제시되어 있음. 고등학교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총 2,678명이며, 이 중 특수학교 졸업생은 1,873명(70%), 특수학급 졸업생은 461명(17%), 통합학급을 졸업한 학생은 344(13%)명이었음. 졸업생 중 가장 많은 비율(40%)의 학생(1,071명)은 미진학

미취업자이었고, 30% 가량(838명)은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등 상급학교로 진학하였으며, 이 중 전공과에 진학한 학생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음(70%). 또한 약 30%가량의 학생(769명)은 취업을 하였는데 기타 직종을 제외하고 포장·조립·운반 등 단순직에 취업한 학생이 132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자조립은 119명, 이료가 91명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 고등학교 졸업생 진로현황

(단위:명, ()안은%)

구분	졸업생 수 계	진 학 자 수				취 업 자 수										미진학 미취업자 수
		전공과	전문대학	대학교	소계	공예	포장조립운반	농업	전자조립	제과제빵	정보처리	산업디자인	이료	기타	소계	
계	2,678 (100%)	591	131	116	838 (31.3%)	45	132	24	119	25	12	7	91	314	769 (28.7%)	1,071 (40%)
특수학교	1,873 (100%)	467	70	84	621 (33%)	10	92	3	71	13	8	6	91	218	512 (27%)	740 (40%)
특수학급	461 (100%)	29	18	16	63 (13.7%)	7	31	21	12	12	4	1	-	47	135 (29.3%)	263 (57%)
통합학급	344 (100%)	95	43	16	154 (44.8%)	28	9	-	36	-	-	-	-	49	122 (35.4%)	68 (19.8%)

자료 : 2003년도 특수교육실태조사서, 교육인적자원부

<표 3>과 같이 **미진학·미취업 학생은 약 40%로 나타나, 중학교의 3.5%에 비하여 매우 심각한 이들의 진로미결정 문제를 드러냄**. 진학한 졸업생 중에서도 상당수는 특수학교에 설치된 전공과에 진학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들이 1, 2년 후 다시 한번 진로문제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이 있음을 미루어 볼 때, 중학교 단계와 차별된 고등학교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진로지도 개입의 필요함이 시사되며, 취업한 졸업생 중 정확하게 직종을 구분할 수 없는 기타 취업자들을 제외하면 **단순직종으로의 취업이 가장 높아, 장애 유형별 적합 직종을 다양화하는 과제**도 남아 있다고 볼 수 있음.

장애유형별 고등학교 졸업 후, 진학 혹은 취업 현황은 <표 4>에 제시되었음. 고등학교 및 전공과 졸업생의 졸업 후 진로 현황을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정신지체의 4가지 장애유형별로 나누어 제시한 것인데 졸업생 총 1,925명 중 진학한 학생은 30.4%인 586명이고, 취업 한 학생은 632명(32.8%)이며, 미진학·미취업 학생수는 가장 많은 비율의 36.7%로 707명에 이르고 있음.

고등학교 및 전공과를 졸업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진로를 보면, 시각장애학생의 취업률이 가장 높았지만, 직종이 안마업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청각장애 및 정신지체의 경우는 기타 업종으로 조사된 것으로 미루어 다양한 단순노동 분야의 업종이 많을 것으로 추측됨. 한편 지체부자유와 정신지체의 경우 40%를 웃도는 많은 수의 졸업생이 진학과 취업을 못한 것으로 나타나 장애 정도가 중증인 학생의 진로 문제는 더욱 심각함을 알 수 있고,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을 졸업한 후 취업하는 것 자체에도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직종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직업교육 직종의 개선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음**.

<표 4> 특수학교 졸업자의 진로 및 취업 현황

(단위:명, ()안은%)

구분	고등학교 졸업자수	진학자수	취업자수									미진학 미취업 자 수
			침구업	안마업	제화업	양재업	목공업	원예업	인쇄업	기타	계	
계	1,925 (100%)	586 (30.4%)	16	75	3	12	5	7	5	509	632 (32.8%)	707 (36.7%)
시각 장애	163 (100%)	47 (28.8%)	15	75	-	-	-	-	-	10	100 (61.3%)	16 (9.8%)
청각 장애	220 (100%)	69 (31.4%)	-	-	2	8	3	-	2	114	129 (58.6%)	22 (20%)
지체 부자유	278 (100%)	110 (39.6%)	-	-	-	-	-	-	1	37	38 (13.7%)	130 (46.8%)
정신 지체	1,264 (100%)	360 (28.5%)	1	-	1	4	2	7	2	348	365 (28.9%)	539 (42.6%)

자료: 2003년도 교육통계연보, 교육인적자원부

IV. 중등단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현황 및 문제점

1. 진로지도 운영 체제상의 문제점

가. 통합교육 지향의 현실과 동떨어진 특수교육 업무의 포괄화 및 진로지도 관심 부족

현재, 특수학교내의 진로지도 활동은 개별화교육계획, 생활지도, 지역사회자원활용, 부모교육 등 특수교육 전반에 걸쳐 다양한 모습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진로지도"업무 만이 특화되는 고유영역으로 실천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음. 부처의 경우, 일반학교의 진로지도 업무는 교육인적자원 부내 5개 국(실) 업무의 분담체제로 이루어진 반면, 특수학교의 진로지도 업무는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1개국의 과장, 연구관, 그리고 연구사로 구성된 총 4인의 인력에 의하여 진로상담, 생활지도, 직업교육, 그리고 취업지도 등의 업무가 동시에 담당되고 있는 현실이므로 '진로지도'업무의 특성·집중화가 매우 미약한 실정임¹⁾.

이러한 이유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원인을 추론할 수 있으며, 결과론적으로 특수교육 내 진로지도의 업무는 다른 영역과 함께 매우 포괄적으로 접근되는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음.

첫째, 특수교육 대상 학생 진로지도와 관련된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내의 진로지도업무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나, 명시된 근거가 매우 포괄적이며 애매하다는 법 조항의 문제점

1) 이러한 부처차원의 진로지도운영체제 문제점은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 진로지도 담당자와의 '정부·시·도교육청·학교단위 진로지도 업무 파악'을 위한 전문가협의회 결과에 기초함. (2003년 7월 2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둘째, 통합교육이 지향되는 현실을 고려할 때, 1개국에서의 포괄적 접근 형식 업무가 결국은 「장애-비장애」와 「특수-일반」 경계를 허무는 통합교육 지향의 현실 인식과 거리가 있다는 점 셋째, 일선의 시·도교육청의 경우, 지역 내 모든 특수교육관련 교육 과제를 한 명의 장학사가 담당·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 즉, 특수교육 담당 진로지도 전문 인력, 재정지원 등 '진로지도'의 교육적 기능과 역할에 대한 관심 부족의 문제로 확인되었음.

나. 효과적인 진로지도 실현을 위한 지원 체계 미흡

효과적 진로지도를 위한 6가지 지원체제¹⁾ 모두를 갖춘 학교가 전체 121개 특수학교 중 5.8%(7학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6개 지원체제 모두를 갖추지 못한 학교는 전체의 8.3%(10개교)로 조사되어, 내실 있는 진로지도서비스를 위한 학교차원에서의 지원체제가 매우 미비함을 알 수 있음. 즉, 전체의 약 94%가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전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6가지 지원체제를 갖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전체학교의 약 30%만이 독립된 진로상담실을 갖추고 있으며, 약 14% 학교만이 학생의 장애특성을 고려한 진로정보 및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음.

즉, 학부모·학생·교사가 진로상담을 나눌 수 있는 친밀하고 독립된 상담 공간 확보를 위한 노력과, 진로정보(취업·진학·훈련·자기탐색·지원 정보)전달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장애특성 보완의 보조소프트웨어의 의무·강제적 구비가 필요한 부분임.

효과적 진로지도를 위한 6가지 지원체제에서 특수학급과 특수학교간의 차이점 유의하게 발견되었음.

즉, 특수학급(83%)이 특수학교(30%)에 비하여 높은 비율의 독립된 진로 상담실을 가지고 있으며, 특수학급(75%)이 특수학교(60.8%)보다 다소 높은 비율의 진로정보자료를 구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하지만 장애특성을 고려한 진로지도 자료 구비의 경우, 특수학교(13.6%)와 특수학급(2.1%) 모두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나, 특수학급에서 구비하고 있는 독립된 진로상담실과 진로정보자료는 일반학생의 눈높이에서 구비된 것이며, 장애학생의 눈높이에 적합한 진로정보 및 자료가 부족하고, 접근성이 미비함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음.

전담 진로교사의 경우, 특수학교(53.3%)와 특수학급(50%)이 비슷한 비율로 배치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특수학급의 경우, 특수교사가 학생의 진로지도를 전담하고 있는 현실로 미루어 볼 때, 특수학급에 배치된 진로상담교사는 비장애 학생 중심적인 역할 수행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특수학교의 경우, 전문진로상담교사와 직업교사의 배치는 의무 규정이 아닌 권장 사항이므로 학교장의 재량에 따라 특수교사 중 일부가 그 역할을 담당하는 현실이고, 업무 측면에서도 진로상담교사는 교과지도와 진로지도를 함께 담당해야 하는 업무 과중의 문제점이 확인되었음.

1) 효과적인 진로지도를 위한 3대 지원 요소(Shutt, 1997)는 학생의 진로문제를 상담할 있는 a. 독립공간과 b. 전문 진로상담원, 그리고 c. 정확하고 신뢰로운 진로정보라 할 수 있음. 이지연(2003)은 내실 있는 진로지도서비스를 위한 6가지 지원체제를 ①독립된 진로상담실, ②진로상담 전담 교사, ③인쇄물형태의 진로정보자료, ④장애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진로교육 소프트웨어, ⑤진로지도내용요소를 담은 정규교과과정, 그리고 ⑥진로지도에 관한 비정규 교과과정 프로그램의 6가지로 구분하여 설문하였음.

학교 유형의 경우, 사립학교에 비하여 국·공립의 경우, 해마다 담당 교사가 바뀌는 경향이 높아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진로지도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다. 진로지도의 형평성·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미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시, 장애를 보완하는 소프트웨어 구비를 통하여 적절한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고, 중요한 과업이며, 이러한 전달방법을 통하여 정확하고 신뢰로운 진로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진로지도의 핵심 주요 요소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학교의 14%만이 장애특성에 적합한 정보와 자료관련 소프트웨어를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와 노동부는 다양한 진로정보 생산을 위하여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공공부분에서 생산된 진로정보가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재가공되지 못한 실정이며, 오히려 비장애 학생의 눈높이에 적합한 취업·진학·직업정보만을 생산되고 있는 현실이라, 「장애·비장애」 간 진로정보 격차의 심각성은 매우 크며, 나아가 진로정보에 관한 형평성과 접근성 한계 극복이 국가의 중요 정책 과제가 될 수 있음.

라. 장애를 보상하는 보조 공학 기기의 개발·보급 미비로 인한 직업세계 이해 부족

특수학교의 약 86%가 장애특성에 적합한 진로지도·정보관련 자료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음. 즉, 장애 학생을 위한 다양한 정보매체와 장애를 보상하는 보조 공학 기기의 개발과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음.

예를 들면, 컴퓨터 사용에서 음성출력, 확대 인쇄, 점역·역점역 출력, 점자 디스플레이 등과 같은 출력 보조도와 인쇄물 인식, 음성 인식, 터치스크린 등과 같은 입력 보조도구 등의 보조장치는 장애 특성을 보상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으로 비 장애 학생의 눈높이로 제작된 진로정보라 할 지라도 학교에 보조 공학 기기가 충분히 보급된다면 진로정보의 접근이 허용되어 학생 스스로의 직업세계 현실을 탐색하고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음.

2. 진로지도 공급자(교사·학부모)측면의 요구사항

가. 특수교육 교사의 진로지도 요구 사항

1) 전담 전문 진로지도 교사 양성 및 배치

특수학교·특수학급 모두 장애유형별 특성화된 진로정보를 전반적으로 구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장 재량에 따라 진로상담교사가 배치되고, 교과목 지도를 병행해야 하는 업무 부과의 고충으로 내실 있는 진로지도의 현실적 어려움이 확인되었음. 또한, 졸업 후, 취업가능직종의 정보와 이를 사전 탐색하기 위한 현장체험의 기회 등이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위한 전담 진로지도 교사의 양성 및 학교 배치가 필요함.

2) '장애특성별 자신감 향상'을 위한 진로지도 개입과 '직업현장체험' 확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한 진로지도의 주요 내용 설문 결과, 1순위는 '자기 장애특성을 파악하고 자신감 향상', 2순위는 '주위사람과의 갈등을 관리하고 문제 해결', 3순위는 '진학과 취업과 관계된 진로정보탐색', 3순위는 '진로의 중요성과 진로계획 수립', 그리고 4순위가 '자기이해'로 나타났다.

교사가 선호하는 진로지도 방법으로는 특수학급·특수학교 교사 모두 '직업현장체험'(선호도 평균 4.07)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실적으로 실시되는 학교가 매우 제한적임.

즉, 기업과 학생 모두가 'WIN-WIN'이 될 수 있는 전략과 「사전-현장체험-사후평가」의 체계적인 직업현장 체험이 실현될 수 있는 학교·기업·지역사회간의 긴밀한 연결고리 지원 체제가 필요함.

나. 학부모의 진로지도 요구 사항

학부모 설문 조사 결과, 자녀의 진로결정에 개입되는 경향이 모든 장애유형에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등과정에서는 지체부자유·정서·기타의 경우가, 고등과정에서는 시각·청각·정신지체 자녀에 대한 학부모의 진로결정 개입 경향이 높게 나타났다.

즉, 자녀의 장애특성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확한 직업정보를 토대로 자녀의 합리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학부모 교육의 내실화가 요구됨.

학부모교육은 자녀의 장애유형과 학교 단위에 따라 진로지도 내용을 차별화하고, 자녀의 특성(연령, 장애, 진로대안)을 고려한 진로지도 중심의 교육 내용으로 전달되어야 할 것임.

특히, 자녀의 희망직업으로 자녀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현실적인 자녀의 직업을 희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향후, 학부모의 높은 자녀 진로결정개입 현실을 고려한다면, 자녀의 「장애특성-적합 직종」에 관한 상세 안내 정보가 학부모교육에서 강조될 필요가 있음.

특수교육에서의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은 오래 전부터 강조된 사항이나 경제적 곤란도가 높은 학부모의 경우, 일터를 쉬고 학교에서 주최하는 학부모교육을 참가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학교 현장 교사의 지적을 참조한다면, 제도적으로 장애 자녀를 둔 부모의 기업에서 한 달 1회 학부모교육에 참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으로부터의 보장 장치가 필요함

3. 진로지도 수요자 측면의 진로개발 특징 분석

가. 진로인식 : 자신과 직업에 대한 낮은 이해

학생의 진로인식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유형에 따라서 자신과 직업에 관한 이해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음¹⁾.

1) 자기이해는 자신이 잘하는 일, 자신의 장점, 자신의 건강과 기분상태, 그리고 자신의 장애에 대해 잘 알고 있는지를 5점

자기이해에 관한 4가지 영역(잘하는 일, 장점, 건강과 기분, 장애특성)에서 대부분의 유형이 중간값(‘어느 정도 그렇다’ 3점) 이상으로 응답하였으나, 정신지체, 중복, 발달장애의 경우는 ‘잘하는 일, 자시의 장점, 장애특성’의 점수가 중간값 이하로 응답되어, 전반적으로 이들 학생에 대한 자기이해가 매우 낮음을 알 수 있음. 특이점은 ‘자신의 장점’에 대한 자기이해의 전체평균점수(2.8)가 중간값(3) 이하로 나타나, 대부분의 장애학생이 자신이 지닌 장점을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단위(중학부·고등부과정)별 자기이해의 수준 차이는 발견되지 않아, 연령의 증가와 발달 결과가 자기이해의 차이를 가져올 것이라는 예상을 깨고 학교단위와 상관없는 자기이해의 동일 수준이 확인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학교단위별, 그리고 장애유형과 정도별로 학생 개인의 객관적인 자기이해를 탐색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검사도구가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는 결과로, 자신의 특성을 효과적으로 탐색하고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진로지도가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함.

직업이해의 정도를 알기 위하여 희망직업과 관련한 7가지 세부 직업정보를 질문하였음¹⁾. 다음의 <표 5>는 장애유형별 희망 응답 직업수를 정리한 것으로 정신지체 학생의 경우 가장 높은 직업 수를 언급하였으나 응답인원수를 고려하면 인지 능력이 정상인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학생이 언급한 직업의 수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비장애학생이 인지하는 희망 직업의 수와 비교하여 직업인지 수준에 관한 차이를 명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함.

<표 5> 장애유형별 직업인지범위

구 분	시각	청각	정신지체	지체부자유	발달	중복	기타
응답인원수	54	45	151	62	45	15	7
직업인지범위*	32	34	100	48	31	11	7

* : 직업인지범위는 응답한 희망직업의 수를 의미함

주 : 직업과 관련이 없는 응답은 직업수에서 제외됨. 중복된 직업명은 한 개로 간주함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의 세부 정보 이해수준과 관련하여, ‘직업이 필요로 하는 능력’에 대한 이해는 시각, 청각, 지체부자유 학생의 평균이 각각 2.81, 2.68, 2.23으로 정신지체, 발달, 중복장애 학생의 평균인 2.10, 1.96, 1.4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후분석 실시 결과와 동일한 양상으로 검증되었음.

한 가지 주목할만한 사실은 지체부자유 학생의 이해정도와 정신지체와 발달장애 학생의 이해정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검증되지 않았음. 즉, 인지능력이 정상인 지체 부자유 학생의 경우, **신체상의 결함이 직업정보를 탐색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음과, 이들의 장애특성을 고려하여 개발된 신뢰롭고 정확한 직업정보가 축적되지 못한 한국 현실을 반영한 결과라 시사됨.**

척도에서 응답하도록 요구하였음. 1점은 ‘전혀 모름’을 의미하고 5점은 ‘매우 잘 알고 있음’을 의미함.

1) 희망직업과, 자신이 희망하는 직업에 관련된 세부 정보의 이해정도를, ①직업에 필요한 능력, ②요구교육수준, ③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 및 자격조건, ④근무환경, ⑤임금, ⑥하는 일, ⑦미래의 전망으로 구분하여 질문하였음. 이러한 여러 측면에 관한 학생의 이해 정도를 4점 척도 상에서 평가하였으며, 4점이 최고점수이며 해당영역에 대해 ‘잘 아는 것’을 반영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시각장애학생을 제외하고 모든 학생의 인지능력과 상관없이 직업을 갖기 위한 '준비과정, 자격 조건, 임금, 미래전망 정보'에 대하여 충분히 알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특성별 희망직업 분석 결과, 자신의 장애특성에 부합되는 현실 가능 직종의 제시보다는 비현실적이며 환상적인 직업을 희망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낮은 직업인식 수준을 확인하였음.

희망직업과 개인능력 및 특성과의 일치도 분석 결과, 특수학교가 특수학급보다 높은 「개인-희망직업」 일치도를 나타내고 있어, 학생의 희망직업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제공의 미비한 특수학급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었음. 따라서 향후 **특수학급 커리큘럼이 일반학생 중심으로부터 장애특성을 고려한 장애적합 직종의 안내와 정보를 포함하는 교과 확충으로 강조될 필요가 있고, 특수학급의 학생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하여 희망 직업으로의 준비가 가능할 수 있도록 통합교육내의 교육과정 재편성 배려도 필요**하다고 생각됨.

나. 진로탐색 : 진로 탐색 행동 결여와 관심 부족

학생의 진로 탐색 활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장애특성에 따른 '진로탐색행동1) 여부, 자기탐색 여부, 그리고 탐색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를 심층 면접하였음

진로탐색행동 여부와 관련하여 특이점은, 중복장애와 발달장애 학생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관심과 장애특성에 적합한 직업정보, 교육정보, 그리고 현장직업인과의 인터뷰 활동' 모두를 하지 않은 것으로 응답하였음. 이러한 결과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학생과 중복장애의 경우, 향후 진로(취업과 진학)를 고민하는 것 자체의 불가능함과 현실적 어려움이 진로 탐색 활동의 심리·행동적 제약을 가져다줄 수 있음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장애로 인한 심리·행동적 제약을 기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보조공학과 편의증진을 제공하여 보다 적극적인 진로 탐색 행동을 동기화 시키는 전략이 진로지도에서 강화**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됨.

자신의 특성을 탐색하고 이해하기 위한 자기탐색행동2) 경험을 질문하였음. 심리검사 실시 경험의 경우, 전체의 64.7%가 '검사 경험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장애 정도가 중증인 학생의 경우는 지필 검사 형식에 대한 수행의 어려움으로 경증인 학생에 비하여 낮은 검사 실시 경험을 나타냈는데 이는 진로지도의 첫 단계인 '자기이해'를 보다 정확하고 내실 있게 하기 위하여 장애특성별 심리 검사 도구 개발이 시급함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음. 또한 진로상담 경험의 경우, 전체의 57.3%가 '진로상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으나, **학생 스스로의 자발적인 상담의 요구이기보다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비자발적 상담 경험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가 자신의 진로문제에 관하여 관심을 갖고 상담을 통하여 진로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사의 체계적·의도적·부수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진로탐색 행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본인과 학부모의 관심 부족' 그리고 '남에게 말하기 부끄러워서' 등이 응답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진로지도를 위한 학교지원체제3)의 미흡으로 인하여 진로탐색의 기

1) 직업정보탐색, 교육정보탐색, 현장직업인인터뷰의 3가지 차원에서 질문하였음.
 2) 심리검사와 진로상담의 경험 여부를 구분하여 질문하였음.
 3) Shutt(1997)은 진로지도를 위한 지원체제 3요소로 ①상담공간(시설 및 설비/도구), ②전문상담자, ③신뢰롭고 정확한 진로정보로 구분하였음.

회가 원천적 봉쇄되었기 때문에, 혹은 학생 개인의 의사소통 능력의 부족 때문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문제를 개방하는 것 자체의 비친숙함으로 그 원인을 추정할 수 있어, 학교 진로지도 지원 체제의 정비와 함께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기본적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병행이 진로지도와 함께 시행되어야 함을 시사함.

다. 진로결정 : 진로 '무관심'으로 인한 진로미결정

학생의 졸업 후 진로결정 상태와 진로 미결정이유를 질문하였음. 전체 73.8%의 학생이 졸업 후의 진로를 결정¹⁾한 것으로 나타났고, 졸업 후의 진로에 대해 구체적 혹은 잠정적 결정 학생에게 '현재하고 있는 공부와 일치하는 것인지를 질문한 결과, 정신지체(70.9%)와 지체부자유(74.4%)가 현재 공부와 일치하는 것으로 응답된 반면, 청각, 중복, 기타 장애 학생과 장애 정도가 심한 '중도' 학생의 경우는 현재 공부와 일치하지 않음을 보고하였음. 따라서, **이들의 불일치에 관한 갈등이 진로지도의 주요 내용요소로 충분히 다루어 야 하는 필요성이 시사되는 동시에, 진로결정집단의 학생이 충분한 진로 정보에 기초한 합리적인 결정이었나를 재평가하는 작업이 진로지도에서 개입되어야 할 것임.**

장애 유형별 진로미결정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의 경우 '진로정보부족', 청각장애와 지체부자유는 경우 '자기명확성 부족', 정신지체의 경우 '무관심'이 높은 비율로 응답되어 진로미결정을 위한 진로 지도 시, 장애 유형별 다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함. 학교 단위별 진로미결정 원인 분석 결과, 중학교과정의 경우 '자기명확성' 부족을, 고등과정의 경우 '무관심'이 높은 비율로 응답되었는데 이는 취업과 진로에 관한 고민이 많은 고등과정의 학생이 '자신의 진로에 무관심하다'는 결과는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대하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인식과 차별의 경험, 그리고 개인적 좌절로 인한 '무관심'으로 해석할 수 있어,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관한 사회전반의 긍정적 인식 전환이 학교진로지도와 동일한 축으로 강조되어야 하는 시사점**을 나타내고 있음.

진로결정 영향인물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부모(52.1%)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은 선생님(32.6%)으로 응답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자녀의 진로지도에 관한 학부모교육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결과이고, 특수교사 연수 시 장애특성별 진로지도의 구체적 전략과 전달방법의 내용이 필요함을 시사하며, 진로정보 출처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생이 다니는 학교(46.4%)로부터 진로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나, 학교차원에서는 신뢰롭고 정확한 장애유형별 진로정보를 갖추고 보급하는 진로지도지원체제를 재정비하고 공공부분에서는 장애유형별 진로정보를 개발하는 R&D에 적극적인 예산투자가 요구되는 부분임.

라. 진로준비 : 직업체험과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경험 부족

'최근 1년 이내, 방과후 혹은 방학을 이용한 직업체험의 경험'을 질문한 결과, 전체 37%만이 '직업체험 경험이 있다'로 응답하였음.

1) '구체적으로 결정하였다'와 '대략 잠정적으로 정하였다'의 경우는 진로결정 상태로, '아직 정하지 못하였다'와 '진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의 경우는 미결정 상태로 분류하였음.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여부’의 경우, 자기소개서는 25.2%가 이력서는 19%가 작성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고 전반적인 자기능력을 스스로 검토하는 기회가 매우 저조함**을 엿볼 수 있었음.

일반인과 다른 장애인의 취업과정 특성상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 경험이 저조할 수 있으리라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함양되는 진로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됨.

희망소득과 관련하여 응답자중 가장 많은 학생이 ‘주는 대로 받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소득에 대한 기대가 없거나 매우 낮은 기대 수준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또한 구직기준의 경우, 청각장애를 제외한 다른 장애유형의 학생은 ‘구직을 하는데 자신의 장애를 걸림돌로 생각’하여 구직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경향을 보인 반면, 비장애인과 인지기능측면에서 가장 차이가 적은 청각장애의 경우 비교적 높은 수준의 구직 기준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장애정도별 구직 기준의 경우, ‘학력과 경력에 적합한 대우를 받지 못하더라도,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에 있어서 중도와 경도간의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어, 경도 장애 학생의 경우, ‘일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한 강한 의지가 확인된 반면, **중도 장애 학생의 경우, 비장애인과 차별 받지 않고, 일하기에 적합한 편의시설 제공이 이들의 “일할 수 있는 기회”에 주요한 전제조건임을** 알 수 있었음.

마. 심리·정서 : 낮은 구직효능감, 자존감과 부정적 정서경험

다양한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리라는 자기능력의 확인인 구직효능감의 경우, 전체 응답자 평균이 2.61로 중간값(3)에 못 미치는 부족함을 나타내었으나, ‘일에 대한 몰입’(3.28 > 중간값 3), ‘변화하는 직장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 ‘자기개발 노력의 경력활성화 의지’(3.52>중간값 3)는 비교적 높게 나타났음.

자존감의 경우¹⁾, 평균 2.94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장애정도가 심한 집단의 경우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심리적 지원의 제공이 필요하고, 졸업 후, 사회에서 경험되는 불안감 등의 스트레스로부터의 스스로를 보호하는 자원으로 사용하는 전략과 장애로 인한 ‘차별’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내용이 진로지도의 주 내용 요소로** 개입되어야 함을 시사함.

정서경험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시각과 발달 장애 집단이 부정적 정서를 보다 많이 경험하였고, 특히 시각 장애의 경우 우울, 불안, 적대감 모두 전체 평균 및 다른 집단의 평균 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의 부정적 정서 감소를 통해서 심리적 안정감을 도모하고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의 진로지도 개입의 필요성이 요구됨을 시사함.

바. 기타

합리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예상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여 입력방법(enter method)에 의한 중

1) ①나는 내가 가치있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②나는 내 자신을 실패자라고 생각한다, ③나는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것 같다, ④나는 대체로 나 자신에 대해 만족하고 있다는 4개 문항으로 질문하였음.

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음. 분석결과, ‘개인의 장애정도,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이해, 일에 대한 몰입 수준, 자존감 등’은 합리적 의사결정 수준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이해, 자신의 능력과 희망하는 직업의 일치도, 구직효능감, 경력활성화 의지 및 부정적 정서’는 합리적 의사결정을 유의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자기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을수록, 자신의 능력과 원하는 직업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구직효능감과 경력활성화 의지가 높을수록 합리적이고 신중한 의사결정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불안, 우울, 적대감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가 낮을수록 합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면,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이 진로와 관련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정확한 이해, 자신의 능력을 근거로 하여 원하는 직업을 고려하는 것, 경력활성화에 대한 높은 의지, 그리고 부정적 정서 수준이 낮을 때,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 결정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정도, 자기에 대한 이해, 직업에 대한 이해, 능력과 원하는 직업의 일치도, 구직효능감, 일에 대한 몰입, 경력활성화 의지, 부정적 정서, 자존감을 예언변인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가 <표 6>에 제시되었음.

<표 6> 합리적 의사결정 관련 변인 및 진로 의사결정 여부 분석 결과

합리적 의사결정 수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중다회귀분석				진로 결정 여부에 대한 관련변인들의 로지스틱 회귀분석			
구 분	Beta	t	유의확률	구분	B	Wald	유의확률
(상수)		2.940	.004	(상수)	-.016	.000	.990
경력활성화 의지	.375	5.752	.000	직업이해	1.084	9.044	.003
자기이해	.245	3.710	.000	능력과 직업일치	.604	6.660	.010
구직효능감	-.219	-2.749	.006	부정적 정서	-.370	3.421	.064
능력과 직업일치	.178	3.040	.003	일에 대한 몰입	-.369	2.336	.126
부정적 정서	-.163	-3.066	.002	구직효능감	.268	1.067	.302
직업이해	-.088	-1.218	.224	자기이해	-.220	1.133	.287
자존감	.083	1.525	.128	자존감	-.149	.194	.660
일에 대한 몰입	-.057	-.919	.359	장애정도	-.102	.242	.623
장애정도	-.046	-.875	1.382	경력활성화 의지	-.016	.006	.937

R² =.239 **음영부분 p<.01

분석 결과, 희망하는 직업을 이해하고, 희망하는 직업과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의 일치도가 높을수록 ‘구체적으로 혹은 대략 잠정적으로 진로결정’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낮은 유의수준을 보이나, 부정적 정서의 수준이 낮을수록 진로결정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러한 결과는 **진로 결정에 있어, 희망하는 직업의 세부적 이해가 필요하며,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본인의 능력과 장애적 특성에 일치하는 직업을 희망하는 것이 진로 결정 여부에 중요한 변인임을** 나타내고 있음.

특수 교육 대상 학생의 삶의 만족과 관련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가 다음의 <표 7>에 제시되어 있음.

상관분석 결과, 장애정도가 경도에 가까울수록, 장애를 삶과 진로목표에 장애가 된다고 느끼는 정도가 낮을수록, 부정적 정서를 낮게 경험하고, 자존감이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경력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높을수록, 진로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 수준이 높을수록 역시 삶의 만족도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 수준은 삶의 만족도와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장애학생에게 비현실적 자아관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 향후 연구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음.

<표 7> 삶의 만족과 관련된 변인 간 상관관계

구분	장애 정도	장애 인식	자기 이해	직업과 능력 일치도	합리적 진로 결정	구직 효능감	자존감	일에 대한 몰입	경력 활성화 의지	부정적 정서	
삶의 만족도	상관 계수	.197**	.396**	-.139*	.080	.339**	.029	.259**	-.023	.206**	-.337**
	N	371	376	375	330	376	372	377	379	378	377

**p<0.01 수준(양쪽), *p<0.05 수준(양쪽)에서 유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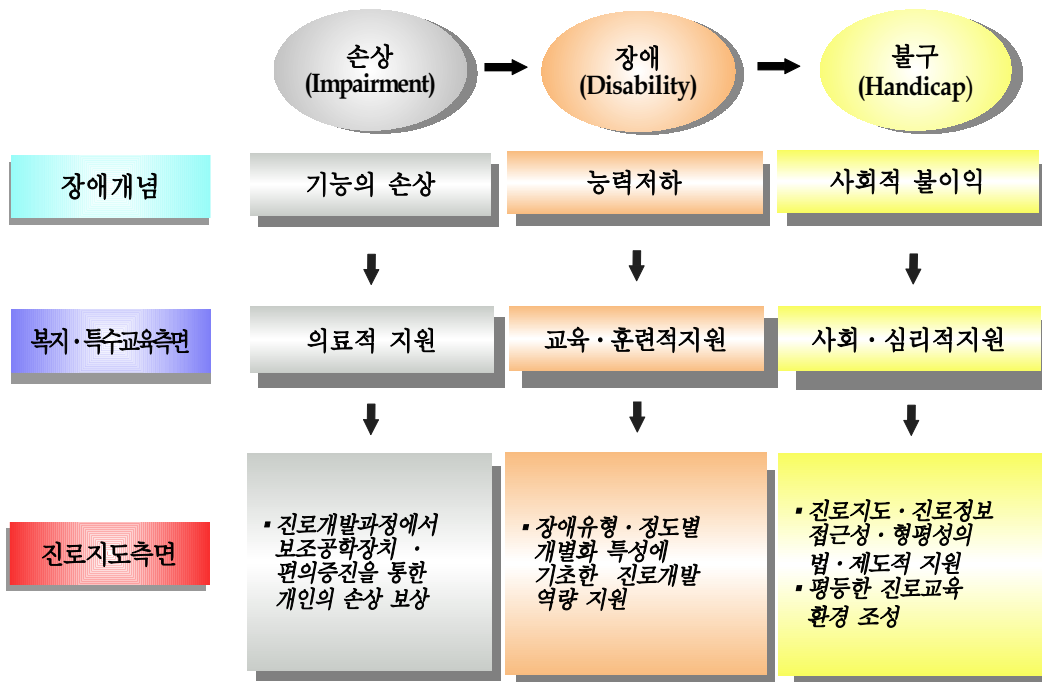
V. 중등단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정책 과제

1. 장애유형별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개입 전략 모형

지금까지 「장애와 진로지도」의 직접적 관계를 다룬 연구가 매우 드물고, 특수교육영역에서도 진로지도 분야는 학문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특성화하여 부각되지 못한 부분이 확인되었기 때문에(이지연 외, 2003)1),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개발 지원을 위한 정책 제안 이전에, 「장애와 진로지도」의 관계를 명확히 설명하는 개념적 틀이 필요함.

장애, 특수교육, 장애인복지, 그리고 진로지도(진로교육)의 4 영역이 상호보완적 관계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개인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진로지도의 교육적 접근방법이 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므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특수교육 활동임을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틀이 요구됨. 이에 개별성·복잡성·포괄성을 포함하는 장애의 개념과 진로지도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진로지도의 개입전략을 제시하는 모형이 다음 [그림 1]에 제시됨.

1) 이러한 결과는 장애개념이 가지고 있는 개별성·복잡성·포괄성 등이 교육적 기술(technique)인 진로지도의 접근으로 해결될 수 없음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음



[그림 1] 「장애·복지·진로지도」 개입 전략 모형

원자료 : 이지연·김은주(2003), '중등단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63쪽의 재수정

[그림 1]에서 제시된 장애 수준과 진로지도 전략모형은 WHO의 장애 수준¹⁾에 의거한 특징과 각 특징에 대응하는 장애복지와 특수교육 측면의 지원 요소를 고려하여 '진로지도' 측면의 개입 전략 요소를 관계적으로 제시한 것임.

손상과 장애는 개인의 신체적 기관 혹은 기능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예방과 치료가 매우 중요하며, 이것은 주로 복지와 특수교육측면에서 의료, 그리고 교육·훈련이 주요 지원 요소가 됨.

손상(impairment)을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지도는 개인의 진로개발과정에서 요구되는 내용(예: 진로정보)이 신체의 손상으로 인하여 전달되지 않을 때, 이러한 손상을 보상하는 보조공학 장치와 편의증진을 통하여 개입되어야 함.

장애(disability)를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지도는 장애유형별 그리고 정도에 따른 개별화에 기초하여 개입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궁극적으로 진로개발에 필요한 지식, 습관, 기술, 태도의 역량이 균형 있게 함양되도록 개입되어야 함.

불구(handicap)는 주로 사회적 장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비장애 학생의 장애인 이해 정도, 장애학생을 위한 진로지도 및 진로정보 지원에 관한 국가·지역사회·학교에서의 형평성과 접근성 보장 등과 같은 법·제도적 지원으로 개입되어야 함.

1) WHO는 장애 차원을 세 가지로 나누어 정의하며, 장애의 발생과정을 질병(disease)->손상(impairment)->장애(disability)->불구(handicap)로 이어진다고 정의하였음.

2. 진로지도 공급자·수요자의 요구 및 문제점과 해결대안 모색

이 글 3장에서 논의된 진로지도 공급자·수요자의 요구 및 문제점과 해결 대안을 위한 모색이 다음 <표 8>에 요약적으로 제시되었음.

<표 8> 진로지도 공급자·수요자 측면의 요구 및 문제점과 해결 대안 모색

구분	학교 진로지도의 요구 및 문제점	해결 대안 모색	
공급자 측면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육진로지도의 법적 명시근거의 애매성 · 진로지도 관련 법안의 현실 부적절성 · 특수교육업무의 포괄화 · 학교·기업·지역사회간연계시스템 미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제도 개정 및 진로지도 역할 명시화 · 부처간 효율적 연계체계 정비 · 업체의 현장실습제공 유인책략 수립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차원의 진로지도지원체계 미비 · 진로정보 및 자료 미비 · 진로상담교사의 중복 업무 과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로지도 형평성·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장치 마련 · 전담 직업진로지도 담당교사 배치 · 특수교사대상의 연수 시 「진로지도」 요소의 강화 및 확대
	학부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이해·진로정보의 부족 · 자녀 진로에 관한 무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교육에서의 「장애특성·적합 직종」에 관한 진로정보 수집·보급·확산 · 자녀의 진로에 관한 합리적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위한 학부모교육 확대 · 학부모교육의 제도적 지원
수요자 측면	진로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탐색’을 위한 심리검사 기회 부족 · 비현실적 희망직업 · 특수학급에서의 「전공-희망직업간」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특성별 심리검사도구 개발·보급·확산 · ‘장애특성·적합 직종’에 관한 교육·훈련·자격·취업정보의 생산·보급·확산 · 특수학급의 직업교과 과정 확충
	진로 탐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증 장애학생의 진로탐색행동 결여 · 심리검사 실시 경험 부족 · 진로에 대한 무관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적 지원을 위한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확산 · 진로정보 전달에 있어 장애를 보상하는 보조공학기기의 개발·보급·확산 · 진로(취업·진학)선택의 중요성 전달 · 학교단위별(중등·고등부) 차별적 진로지도 전달
	진로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도장애인의 「희망직업-공부」 간 불일치 · 장애유형에 따른 진로미결정 이유의 다양성 · 높은 학부모의 자녀진로결정 개입 수준 · 진로정보출처로서의 높은 학교 의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일치로 인한 갈등 해소 지원 · 「합리적 의사결정」 증진 진로지도 개입 · 자녀 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강화 및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 · 학교의 효과적 진로지도 지원체계 정비
	진로 준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체험부족 · 비합리적 소득 기대치 및 구직기준 · 비차별과 일하기 적합한 편의시설의 일터 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기업·지역사회간 긴밀한 연계 시스템 구축 · 자신의 「장애특성-적합 직종」 간의 수준 조율을 지원하는 진로지도 · 직업정보에 대한 ‘접근성 증진’ 방안모색 · 장애에 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 전환
	심리 정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낮은 구직효능감·자존감 · 높은 부정적 정서경험(우울·불안·적대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심리·사회적 지원’에 관한 진로지도 개입 프로그램 개발·보급·확산 · 부정적 정서완화를 위한 지원·심리치료 병행 · 차별에 관한 예방적 교육 강화 · 장애유형·정도의 개별화와 특성에 기초 진로지도 실시

원자료 : 이지연·김은주(2003), ‘중등단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70쪽 자료를 재정리함.

3. 국가 우선 4대 정책 과제

가. 진로지도 지원 요소로서의 보조공학과 편의증진 보장 및 확대

미국의 경우, 재활법, 보조공학법, 미국장애인법, 장애인교육법 등은 보조공학(assistive technology)과 편의증진(accommodation)관련 내용을 법에 명시하고 있어, 교육·직업·일상생활에서 장애인 사회통합과 참여를 위한 접근권(accessibility), 그리고 적절한 편의증진 및 관련 서비스를 의무화하고 있음.

손상을 가지고 있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지도는 개인의 진로개발과정에서 신체·기능적 손상을 보상할 수 있는 보조공학장치와 편의증진의 지원을 통하여 개입되어야 함. 여기서 보조공학장치란 장애인의 기능을 증진·유지·향상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맞춤형 장비와 제품시스템을 가리키며(미국의 보조공학법, 1998), 신체·기능적 손상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첨단소프트웨어라 할 수 있는 것으로 예를 들어, 시·청각 장애학생을 위하여 진로정보의 문자가 있는 인쇄물을 스캔하거나 타자로 입력하여 컴퓨터로 옮겨, 컴퓨터 화면상의 문자를 스캐닝하면서 음성 출력하는 것, 인쇄물을 테이프, CD-Rom, 인터넷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문자와 그림의 확대 등이 이에 해당됨.

진로지도에 있어 편의증진이란 비장애 학생이 사용하는 진로 서비스를 장애학생도 무리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설비도구 및 낭독자와 통역사, 기타 유사 편의 제공을 가리킴(Bryant, Erin & Lock, 1998). 구체적으로, 신체·기능의 손상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 제작된 심리검사 도구의 실시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자기이해'의 수준을 향상시키며, 의사소통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 경우, 대체·변형 의사소통장치를 통하여 혹은 통역사와 함께 면대면 심층 진로상담이 가능하도록 제공하는 것과 지체부자유 학생의 자유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계된 진로상담실 등이 여기에 해당되는 예가 될 수 있음.

나. 장애 특성에 기초한 진로개발 역량 지원의 국가 진로지도 기본 계획 수립

기능 손상에 의한 장애는 능력저하의 장애 유형(시각·청각·지체·정서·정신지체·중복·발달 등)과 그 장애정도에 따라 차별된 진로지도의 개입이 필요함. 특수교육대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면접한 결과 장애유형과 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한 진로개발과정상의 특징이 분석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각 장애의 심리·정서·행동적 특징을 총체적으로 고려하여 각 개인의 개별화 특성이 진로지도의 내용과 전달과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시사함.

이를 위해서는 장애유형별 개별화 특성에 기초한 진로개발과정(진로인식->탐색->결정->준비)과 심리·정서적 특성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각 과정의 문제점을 대응할 수 있는 개입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며, 프로그램의 성과를 재평가하는 국가 단위의 체계적 진로지도 기본 계획안이 학교단위에 적합하게 활용되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다. 진로지도와 진로정보의 접근성·형평성 보장의 법·제도적 지원

사회적 불이익으로 인한 '불구'는 정상으로 간주되는 역할 수행에 제한이 오거나 못하게 되어 생기는 개인

의 불이익 상태를 의미함. 즉, 장애인과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예를 들어, 비장애인은 이용 가능하지만, 장애인은 이용 불가능한 사회제도에 대한 문화·물리·심리적 장애를 포괄적으로 의미하고 있음. 즉, 불구를 느끼는 학생의 진로지도는 학생의 주관성에 따라 자신이 불이익 상태라 느끼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데 이는 손상과 장애가 반드시 불구로 연결되지 않음은 편견없는 사회 환경과 개인의 심리적 지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임.

미국의 경우, 비차별·각종 편의시설·접근성 보장 등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고, 진로정보 생산 단계부터 모든 취약계층의 진로정보 활용성이 고려되어 진로정보의 보급·확산 단계 시 장애특성별 접근성을 국가 정책의 핵심요소로 법에 명문화하고 있음. 이것은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 스스로에게 사회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는 심리적 위축감을 상대적으로 최소화시키려는 다각적 노력이라 평가됨.

따라서, 진로지도·진로정보의 형평성과 접근성 확대를 위한 보조공학 장치와 편의증진 관련 사항이 특수교육법진흥법 조항에 명확히, 그리고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함. 즉, 모든 공공부분의 진로정보 생산·보급·확산의 성과에 장애인 접근을 보장되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개인의 사회·심리적 불이익 부분의 최소화는 물론, 신뢰롭고 정확한 진로정보에 기초하여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진로 결정과 직업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제가 요구됨.

라. 평등한 진로교육 환경 조성

특수교육대상 학생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은, 비장애 학생뿐 아니라 장애 학생 스스로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자신을 무능력자로 인식하는 사회의 장애 학생은 사회로부터 부여받은 규범적인 역할 수행을 포기하거나 거부하는 경향이 있음.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한 면접의 결과, 이들은 스스로 자존감과 자신의 장점을 이해하는 수준이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어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학생 스스로의 자기 평가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음. 따라서, 이처럼 학생 스스로의 자기부정과 낮은 수준의 사회통합 현실에서 '통합교육'을 지향하는 것은 개인의 완전 사회통합이라는 목표에 득보다 失로 작용될 수 있고, 이는 장애라는 개별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교육 환경에서 계속된 무능력자의 불구상태로, 혹은 장애의 복잡성을 더욱 증증화시키는 현실과 관련이 높음.

따라서, 이처럼 동일한 사회 구조에서 개인의 다양한 차이를 설명하지 못하고, 장애를 보상하는 지원장치가 미비한 교육 환경에서는 통합교육 실시 이전에, 특수학교·특수학급 공히 평등하게 학생의 '장애' 특수성을 보완하는 진로지도 지원체제를 내실 있게 구축하고, 특수교육 전문 영역별 교원의 부족을 해결하여, 「일반-특수」의 평등한 진로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함. 즉, 이러한 교육환경이 이들의 진로개발을 지원하는 우선 정책과제이자, '장애'에 대한 사회장벽과 심리적 위축을 줄이는 최우선 과제일 수 있음.

4.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개발을 위한 세부 지원 과제

그 외 세부적인 진로지도의 지원 방안은 다음의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① 법·제도적 측면, ② 진로지도 지원체계, ③ 진로지도내용, ④ 진로지도 전달 방법, 그리고 ⑤ 특수교사의 진로지도 역량 제고의 5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였으며 추진 주체별 시급성으로 제안하였음.

<표 9> 세부 지원 방안 및 영역별 추진 주체 구분

구분	해결 대안 및 정책 과제	추진 주체				
		정부	학교	기업	지역 사회	연구 기관
법·제도적 지원	▪ 진로지도 역할 특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정	●				●
	▪ 진로지도 형평성·접근성 보장을 위한 법·제도장치 마련	●				●
	▪ 정부 부처간 효율적 연계체제 정비	●				
	▪ 기업체의 현장실습 제공 유인책략 수립	◆		◆		
	▪ 자녀진로지도를 위한 학부모 교육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	●	●	●
	▪ 평등한 진로교육 환경 조성	●	●	●	●	
효과적 진로지도 지원체계	▪ 독립 진로 상담 공간 마련		●			
	▪ 전담 직업·진로지도 전문 교사 배치		●			
	▪ 「장애특성·적합 직종」에 관한 진로정보 개발·보급·확산	●				●
	▪ 장애특성 보완의 보조공학기기 구비	●	●	●	●	
	▪ 학교·기업·지역사회간 긴밀한 연계 시스템 구축	●	●	●	●	
	▪ 장애유형별 직업정보의 「접근성 증진」 방안모색	◆	◆		◆	◆
효과적 진로지도 내용	▪ 장애유형·정도의 개별화와 특성에 기초 진로지도 실시		●			◆
	▪ '희망직업·학습경험'간 불일치로 인한 갈등해소 지원		◆			
	▪ 자녀 진로지도의 중요성 강조를 위한 학부모교육 확대		●		●	
	▪ 자존감 지원 진로지도 프로그램 개발·보급·확산		◆			◆
	▪ '합리적 의사결정' 증진 진로지도 개입		◆			
	▪ 「장애특성·적합 직종」간의 수준조율 지원			●		●
	▪ 「장애특성·적합 직종」에 관한 진로정보의 개발·보급·확산	●	●	●	●	●
	▪ 부정적 정서완화를 위한 지원과 심리치료 개입		◆			
▪ 장애로 인한 차별에 관한 예방적 교육 강화		●				
효과적 진로지도 전달방법	▪ 장애특성별 심리검사도구 개발·보급·확산		●			●
	▪ 특수학급의 직업교과 과정 확충	●	◆			
	▪ 진로정보 접근성을 지원하는 보조공학기기의 개발·보급·확산	●	◆		◆	
	▪ 진로(취업·진학)선택의 중요성 전달		◆			
	▪ 학교단위·장애유형별 차별된 진로지도		●			
	▪ 체계적 「현장실습」 운영		●	●	●	
특수교사의 진로지도 역량제고	▪ 특수교사 대상의 연수 프로그램 설계 및 확대 일반교사 대상의 '장애학생' 이해 연수프로그램 실시		●			●

참고 : ● 단기적 시급성, ◆ 중·장기적 접근

원자료 : 이지연·김은주(2003), 중등단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지도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내용을 재수정함.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2003). 『특수교육실태조사서』 .
- 이유훈·김계옥·정동일·정희섭(2002). 『특수교육기관운영실태분석』 .경기:국립특수교육원.
- 이지연·노연희(2000). 『취업한 장애인의 체계적 경력개발을 위한 모형연구』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2001a). 「21세기와 장애인의 인적자원개발 방향」 . 『직업과 인력개발』 , 제3권 6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이지연(2001b). 「장애청소년의 진로교육을 통한 고용연계 강화」 . 『장애인고용』 ,봄호,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이지연(2003). 「장애청소년의 진로교육」 . 『인천진로교육』 .
- 이지연·김은주(2003). 『중등단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진로지도현황 및 정책과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임언 외(2001). 『진로성숙도검사개발보고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한국교육개발원. (2003). 『교육통계연보』 .
- Conte, L. E (1983). "Vocational development theories and the disabled person: Oversight or deliberate omission?". *Rehabilitation counseling Bulletin*, 26, 316-328
- Currow, T. C. (1988). "Vocational development of persons with disability".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7, 269-278
- Hagner, D., & Salomone, P.R. (1989). "Issues in career decision making for worker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7, 269-278.
- Hall, D. T.(1976). *Careers in Organizations*. Glenview, IL: Scott, Foresman, and Co.
- Hershenson, D.B., & Langbauer, W.R. (1973). "Sequencing of intrapsychic stages of vocational development".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20, 519-521.
- Hershenson, D.B., & Lavery, G.L. (1978). "Sequencing of vocational development stages: Further stud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2, 102-108.
- Husaini S. T. & Moore(1990). Arthritis disability, depression and life satisfaction among black elderly people. *Health and social work*. Vol 15.
- Kokaska, C. J. & Brolin, D. E. (1985). *Career Education for handicapped individuals(2nd)*. Columbus, Ohio : Charles E. Merrill.
- LaPlante, M.P. (1991). "The demographics of disability". *the milbank quarterly*, Vol 69, Suppl/2, pt.1 no, 55-77.
- Wonacott, M. E. (2001). "Students with disabilities in career and technical education". *Eric Digest* No. 230.